

# 시공 초월한 포용적 사고... 四方 + 三世 반영

## 탑의 진화

### ④ 7층 불탑

부처님의 열반 직후부터 불제자들은 사리를 보다 더 잘 봉안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인도에 남아 있는 산치 대탑을 비롯한 많은 불탑 유적은 한 걸 같이 불교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표현하려는 조형적 특징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불탑조형성을 수용하였지만 단순히 모방에 그치지 않았다. 우리 민족만의 정서와 불탑신앙을 반영하는 독창적이고 다양한 불탑을 꾸준히 조성하여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있다. 다양한 불탑의 층수에 있어서는 이미 지난 연재에서 3층과 5층에 대하여 거론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7층탑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7층탑 조성에 대하여 뚜렷한 문헌적 근거는 아직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필자의 개인적 사견으로 시공(時空)을 두루 아우르는 불교의 포용적 사고와 연결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자 한다. 즉 동서남북의 사방을 의미하는 세계관적 상징 숫자인 4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개념인 3을 더하여 7이라는 결론으로 7층탑을 조성하여 부처님께 모든 중생이 언젠, 어디에서나 예경하고자 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7층의 불탑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꾸준히 조성되었다. 상주 상오리 7층석탑(보물1285호), 춘천 7층석탑(보물77호), 양양 낙산사 7층석탑(보물499호), 정읍 천곡사 7층석탑(보물309호), 공주 청량사 7층석탑(보물1285호), 익산 심곡사 7층석탑, 창경궁 7층석탑(보물1119호) (사진1) 등 제한된 지면으로는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으로 방대하다.

현재 서울시 용산구의 국립중앙박물관 정원에 전시되어 있는 남계원 7층석탑(국보 100호) (사진2)은 그 기품 있는 모습과 달리 매우 기구한 사연이 담겨 있다. 본래 개성시 남계원지에 조성되어 있었던 이 탑은 개성시의 덕안동이 예전에 개국사(開國寺)터로 알려져, 개국사탑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하

지만 후에 개국사터는 다른 곳에서 발견되고 탑이 있던 곳은 남계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 지금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

총 높이 7.4m의 이 탑은 2층의 기단부와 7층의 탑신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라 석탑 양식과 고려 석탑의 양식적 특징이 모두 잘 나타나 있어 시대적 흐름에 따른 탑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탑은 본래 있었던 남계원지를 떠나야만 했는데, 1915년 일본에 의해 강제로 옮겨진 경복궁이 바로 첫 이주지였다. 1910년, 일본은 대한제국 황실의 명칭을 격하시키고 황실의 재산을 정리해 처분하는 등 조선의 권위와 권력을 빼앗기 위한 찬탈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그 중 일본은 1915년, 강제 한일병합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대적인 박람회(博覽會)를 기획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 내 대부분의 건물들이 파괴되고 철거되었다. 건물들이 사라지고 넓어진 공간은 전국 각지에서 가져온 석조문화재를 비롯한 각종 유물들로 채워졌다. 이 뿐만 아니라 창덕궁과 창경궁 역시 연화장이나 동물원, 식물원 등으로 조성하여 조선 왕실의 품위와 위엄을 떨어뜨림으로써 조선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장악하고자 하는 행위가 계속되었다.

개성 남계원지에 있던 7층 석탑 또한 이때 '조선불사공진회'의 전시용품으로 쓰기 위해 옮겨졌고, 이 과정에서 기단부를 제외한 7층의 탑신부만 경복궁에 놓이고 말았다. 후에 기단부를 찾아 탑신부 옆에 함께 놓였지만 이미 본래의 모습을 잃었던 탑은, 한참이 지난 1990년에야 다시 원형으로 복원되었다. 한편 경복궁으로 이전하던 1915년에 탑신부에서 고려 제25대 충렬왕(忠烈王) 때 사경(寫經)한 것으로 보이는 7층의 <감지은니모법연화경(紺紙銀泥妙法蓮華經)>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탑의 조성 연대를 추측해볼 수 있었다.

1962년에 국보 제 100호로 지정된 이 탑은, 2005년에 다시 지금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 마침내 고당픈 이주를 끝내게 되었다. 비록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가지 못했으나 남계원지의 7층 석탑은 이렇게 안전한 장소에서 당당히 국보 대접을 받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붕괴 위기에

처한 불탑이 있다. 안동의 법흥사지 7층 전탑(사진3)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이 탑은 놀랍게도 중앙선 철도에서 3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철도를 탑 가까이 놓았기 때문인데, 탑은 그 후 지금까지도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훼손되고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탑의 한 편엔 철도와 펜스가 쳐있고, 또 한 편엔 고성 이씨 종택의 담벼락이 자리하고 있어 탑이 있는 장소는 매우 비좁고 열악하다. 1962년에 국보 제16호로 지정되었지만 벽돌을 정성스레 쌓아올린 기품 있고 웅장한 모습과는 달리, 철도와 민가 사이에 놓인 탑의 위치와 그로 인한 붕괴의 위험은 참배객으로 하여금 깊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하지만 이 7층 전탑 역시 조성될 당시부터 이처럼 위태로운 운명에 처한 것은 아니었다. 통일신라 때 창건된 법흥사(法興寺)에 조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탑은 총 높이 17m로, 현존하는 가

### 우리 한민족 불탑신앙 반영 불교의 포용적 사고 드러나 탑은 시공간 넘은 예경 수단

장 크고 오래된 전탑이다. 일본이 보수를 빚미로 탑의 기단부에 시멘트를 발라 원형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기단부에는 감실이 있고, 유실되기 이전엔 이 감실 안에 비로자나 불상이 모셔져 있었다. 7층의 탑신부 지붕엔 기와를 이었던 흔적이 있어, 목탑 양식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또 현재 상륜부는 유실되어 없지만 원래 금동제 상륜부였었다는 기록이 안동의 역사서인 <영가지(永嘉誌)>에 남아 있어, 탑의 원형은 더욱 여법하고 아름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중앙선 철도 바로 옆엔 낙동강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안동댐으로 향하는 도로가 위치해 있는데, 낙동강과

<사진2> 남계원 7층석탑



가까운 지리적 특성을 통해 이 탑의 조성 목적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안동은 예로부터 남쪽이 뿔려있는 지형이라 강이 홍수 등으로 범람하면 그 물줄기가 모두 안쪽으로 쏟아진다. 풍수적 결합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이러한 결합을 보완하고자 '비보풍수(裨補風水)'의 하나로서 남쪽에 일직선으로 탑을 세웠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법흥사지 7층 전탑일 것이라 추측해본다. 또한 탑을 조성함으로써, 그 공덕을 통해 강의 범람과 침수를 막고자 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안동의 법흥사지 7층 전탑이 현존하는 가장 크고 오래된 전탑이었다면, 충주의 탑령리 7층 석탑(사진4)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탑으로 손꼽힌다. 높이 14.5m로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이 탑은 '중앙탑'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 명칭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한다. 충주는 삼국시 대부터 교통의 요충지로 알려져 왔는데, 8세기에 신라의 원성왕은 국토의 중앙이 되는 지점을 알아보

이라 여기며 탑을 세운 것이, 바로 지금의 탑령리 7층 석탑이라 한다.

현재 뿐 아니라 조성될 당시에도 신라 유일의 거대한 7층 석탑이었던 이 탑은 신라 석탑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다. 2층의 기단부로 이루어져 있고, 탑신부 5층까지는 여러 개의 돌로 구성되어있던 6층과 7층은 각 한 개의 돌로만 이루어져 있다. 1917년 일본에 의하여 해체 및 보수되었는데, 이 때 탑신부 6층과 기단부에서 고려시대 거울을 비롯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특히 탑신부에 있던 거울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기에, 탑을 조성한 신라 8세기 이후에도 고려시기에 재차 사리장엄을 봉안하였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큰 규모가 주는 웅장함과 함께 상부로 갈수록 탑의 너비가 좁아지는 형태가 그 높이만큼이나 아름다움을 더해 준다.

현화사는 어려서부터 고아로 자랐던 고려 현종이, 즉위한 이후 부모님의 명복을 빌어드리기 위해 1011년에 지은 절이다. 현화사는 창건 이후 고려 왕실의 원찰로서 각종 법회가 열렸던 주요 도량이었지만 오래 전에 없어지고 현재는 그 터만 남아 있다. 지금의 개성시 장풍군 영추사 남쪽 기슭에 위치해 있었으며, 절의 창건 이유와 내력을 새겨 적은 현화사비에 의하면 1020년에 현화사 7층석탑(사진5)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탑과 관련하여 현화사비에 적힌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庚申歲十月內... 遂於當寺造石塔一座七層 (1020년 10월에... 드디어 이 절에 칠층 석탑을 지었다.)

높이 8.64m의 이 탑은 고려의 석탑 양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하며, 고려를 대표하는 석탑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기단부는 단층기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탑신부의 각층 4면 모두에 감실형 안상을 새긴 다음 그 안에 불상과 보살상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조각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탑을 이루는 전체적으로 날렵하고 유려한 곡선들은 이 탑이 고려의 석탑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탑은 북한의 국보급 문화재 제 41호로 지정되었는데, 후에 다시 국보 문화유물 제 139호로 변경되었다. 절터에 있던 현화사비와 함께 탑은 현재 개성시 고려박물관으로 옮겨져 있고, 탑과 있던 석등은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존하고 있다.

다음호에서는 9층 탑에 대하여 알아보



글·유인보 <불교문화예술학 박사>



창경궁 7층석탑



법흥사지 7층전탑



탑령리 7층 석탑



현화사 7층석탑

**JJUN Heating System Module**

“**쫐**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 온수난방 SYSTEM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C ~ 50°C) 난방 가능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 지역 대리점 ■  
서울 : 010-5097-8291  
평창 : 010-6433-8612  
김천 : 010-9091-4583  
북광주 : 010-3641-0605  
여수 : 010-3612-7784  
수원 : 010-5211-7260  
서산 : 010-7301-5854  
진주 : 010-3583-7139  
서평주 : 010-6890-0365  
고성 : 010-4578-0961  
남양주 : 010-9183-9729  
양산 : 010-6294-6126  
울산 : 010-4597-5577  
익산 : 010-6610-2337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사찰 연등 및 전선(범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 규격임조

설치가 편리한 고려형 후크

고추구 12E 3구 인치구 26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일사형 S형 T편리형 LED대형 LED대형 전선지 초

▶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범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선 시공**